

CSU GLOCAL

LETTER



2026
JULY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이달의 글로컬 소식
3. GLOCAL TALK
4. 학생이 전하는 글로컬 이야기
5. 언론이 주목한 글로컬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로컬대학추진단

●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 2. 이달의 글로벌 소식

- 06 광주 도심권 최고 성적, 첫 연차평가 B등급 조선대, 국고지원금 137.5억 원 전액 확보
- 08 데이터를 잇다, 미래를 잇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
- 09 세계가 주목한 K-스포츠 아이디어 체육학과 학생팀, 일본 창업대회 우수상

● 3. GLOCAL TALK

- 10 글로벌 인턴십(미국) 참여학생 인터뷰

● 4. 학생이 전하는 글로벌 이야기

- 14 전공 선택부터 진로 경험까지, 달라지는 조선대학교 교육
- 15 강의실을 넘어 현장으로! 프로젝트학기제로 배우는 실전경험

● 5.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 17 조선대, 항저우에 세종학당 설립...K-문화 글로벌 거점 확대
조선대·동구청 CSU 도시캠퍼스, '내 인생 예술 한 페이지' 성과공유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글로벌대학이란?

글로벌(Glob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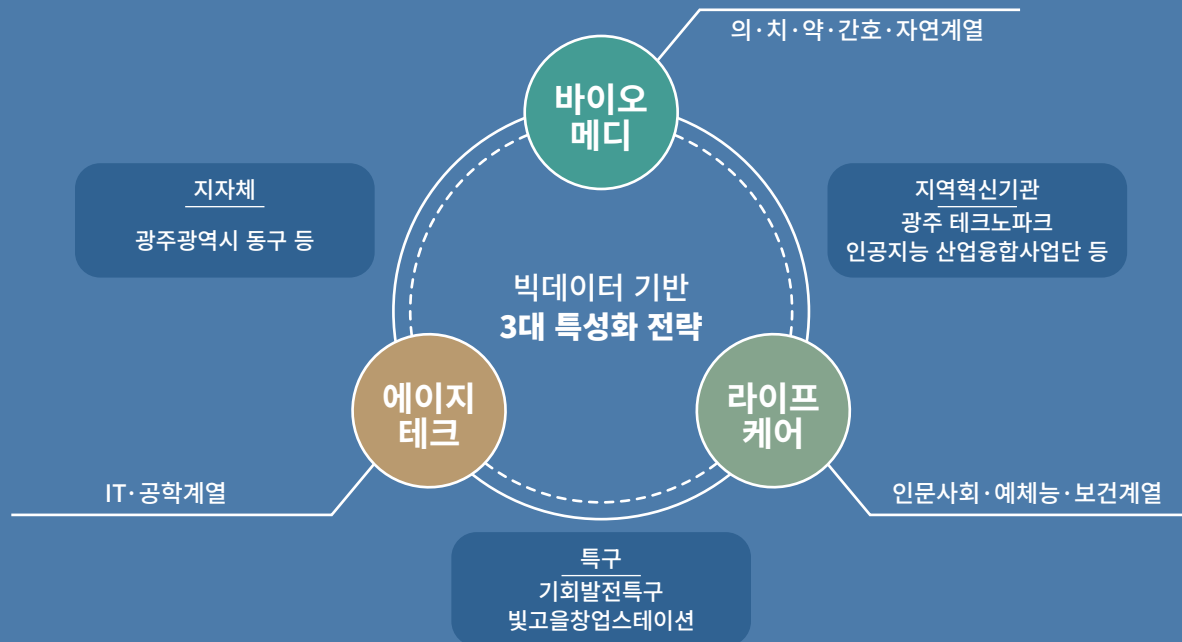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핵심 비전

“웰에이징 Asia No.1대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미래형 대학

웰에이징 3대 특성화 전략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바이오,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건강하고 편리하며 행복한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특성화 분야



교육 혁신

■ 달성값 ■ 목표값
기준 일자: 2026. 7. 30.



연구혁신·지산학협력



글로벌 도약



이달의 글로벌 소식

광주 도심권 최고 성적, 첫 연차평가 B등급 조선대, 국고지원금 137.5억 원 전액 확보

첫 평가에서 확인된 혁신 실행력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대학) 성과평가에서 광주 도심권 글로벌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B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2026년 국고지원금 137억 5천만 원을 감액 없이 전액 확보하고, 2차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 이후 처음 실시된 연차평가로, 1차년도 혁신과제의 이행 수준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한 상대평가로 진행됐으며, 대학별 발표와 심층

▼ 조선대학교 전경



▲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대면평가 현장에 참석한 조선대-조선간호대 구성원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처럼 다각적이고 엄격한 검증 속에서 거둔 B등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대학교는 이행목표 달성도 97.38%, 성과지표 달성도 96.08%를 기록하며 계획한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온 실행력과 성과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대학 통합과 학사구조 혁신, 핵심 성과로

주요 성과로는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 승인과 웰에이징 3대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학사구조 개편이 꼽혔다. 조선대학교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메디대학·에이지테크대학·라이프케어대학과 글로벌융합스쿨을 신설하고, 2027학년도 입학정원의 35.15%인 1,582명을 전공자유선택 모집단위로 선발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글로벌학부 운영 기반 마련과 AI 데이터센터 연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역 웰에이징 협력 네트워크 조성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첫해의 성과를 2차년도 혁신으로

조선대학교는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실행계획에 반영해 성과지표 관리와 환류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통합대학 출범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교육·연구·지산학·글로벌 분야의 성과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2차년도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를 잇다, 미래를 잇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



▲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조선대학교 국제관

조선대학교는 7월 15일 글로벌대학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 통보를 받으며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돌입했다. 약 17억 1,300만 원을 투입해 국제관 슈퍼컴퓨터실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본격 활용을 목표로 하며, 웰에이징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치매 코호트, 조선대병원의 진료정보와 의료영상, 해양생물, 구강미생물 등 웰에이징 분야의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관과 연구실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NVIDIA DGX B300의 모습 (출처: www.nvidia.com)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으로 연결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의료·바이오·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분야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최신 NVIDIA DGX B300 GPU 서버를 비롯한 고성능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의료영상과 유전체, 웨어러블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학생 교육과 연구, 기업 공동연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을 넘어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AI 인프라

이번 구축계획은 기존 장비와의 차별성, 신규 구축 필요성, 장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최종 승인됐다. 조선대학교는 AI 데이터센터를 학생과 교직원의 AI 활용 교육은 물론, 조선대병원과 지역 기업, 광주·전남 연구기관, 글로벌 공동연구를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허브로 발전시켜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가 주목한 K-스포츠 아이디어 체육학과 학생팀, 일본 창업대회 우수상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창업 아이디어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 창업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확대된 글로벌 교육의 성과를 세계 무대에서 입증했다. 체육학과 1학년 김이현·이태인 학생팀은 지난 6월 27일 일본 긴키대학 히가시오사카 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청년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및 유학생들이 참가해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며 경쟁을 펼쳤다.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상 체육학과 김이현, 이태인학생 (지도교수 김옥주)

입학 첫해, 국제무대에서 거둔 성과

학생팀은 '스포츠 성향 기반 운동 파트너 매칭 플랫폼'을 제안했다. 개인의 운동 능력과 성향, 운동 목적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운동 파트너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운동과 IT를 접목한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대학 입학 첫해인 1학년 학생들이 국제 창업무대에 도전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전공에서 배운 스포츠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지도교수인 김옥주 교수는 학생들이 K-스포츠 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육이 만든 글로벌 성과

이번 성과는 조선대학교가 글로벌대학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교육과 국제 교류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전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K-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체육학과 김이현, 이태인 학생이 발표하고 있다.

GLOCAL TALK

글로벌 인턴십(미국)

미국 글로벌 인턴십, 학생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것은 새로운 간호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4학년 임여진·김민영 학생을 만나 프로그램 참여 계기부터 현지에서 경험한 웰에이징 의료시스템, 그리고 인턴십 이후 달라진 진로에 대한 생각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임여진 : 최근 의료계에서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존엄하게 늙어가는 ‘웰에이징’의 개념이 대두 되고 있는데, 간호학을 공부하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웰에이징을 다루고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영 : 1년간 대학 병원에서 실습하며, 급성기치료*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환자분들이 퇴원 후 집에서 자가간호시스템, 정신적 간호가 힘든 것 같다고 느껴 늘 이 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는 홈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웰에이징’을 잘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저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급성기 치료 : 병이 갑자기 시작되어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된 ‘급성기’에, 빠른 회복과 위험(자·타해 위험 포함) 감소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건·인적·사회적 서비스

▶ 글로벌 인턴십(미국)에 참여한 임여진, 김민영 학생과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



Q (한국에서 도입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에서 아쉬웠던 점

임여진 :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홈헬스케어전시(Home Health Agency)에 QA(Quality Assurance)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간호 기록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오차를 줄이고, 법적인, 재정적인 리스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기록을 더 잘 관리하고 간호사가 환자관리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민영 : 저 역시 한국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메모리 케어* 센터가 보여준 환자 자율성 존중 운영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요양시설은 안전 문제로 인해 환자의 자율성이 다소 제한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입 기록부나 스마트 태그를 활용해 자유롭게 이동을 보장하되,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보호자 동행하에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메모리 케어 시설(Memory Care Facility) :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 기억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가 특화된 전문 요양·거주 시설



◀ Valley Silvertown 투어 현장

▶ QA 직무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학생들▶





▲ LA General Medical Center USC 캠퍼스 투어 현장

Q 인턴십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임여진 : 실내 홈헬스케어 시스템(Home Healthcare), 널싱홈(Nursing Home), 어시스트리빙(Assisted Living)과 같은 다양한 요양시설과 로컬 클리닉, 바이오랩을 현장을 견학 했으며, 현직 알엔(RN*),큐에이(QA*),인민번호사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만나며 강의를 들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RN (Registered Nurse) : 면허가 있는 등록된 미국의 정식 간호사

*QA (Quality Assurance) : 의료 기록과 서비스 과정이 정부 규정 및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

Q 미국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민영 : 우버를 탑승하면서, 다양한 기사의 우버 기사님을 만나 스몰토크를 진행했는데, 그 중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사를 만나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고 물었는데, 전애인 분이 한국인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이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였던 것 같습니다.

Q 이후에 인턴십을 참여하게 될 학우 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키워드로 소개해본다면?

임여진 : '부스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웰에이징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약이 되는 시간 이었습니다.

김민영 : '터닝포인트'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정보가 부족해 학부 생활을 하며 목표가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주간 미국의 다양한 홈헬스케어 현장을 직접 보고, 현지 멘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그릴수 있게 되었고, 진로를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 글로벌대학의 특성화 분야 중 가장 관심 가는 분야는 무엇인지?

임여진 : '라이프케어' 미국 인턴십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홈헬스케어를 보고, 생애주기에 맞춰서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가 간호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영 : '라이프케어'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는 질병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급성기치료는 재원은 짧다보니 심리적인 불안이나 사회적인 고립감 까지는 케어가 힘들어 이 부분이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메모리케어 시설, 주간보호 시설을 방문하며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케어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넘어 환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삶 전체를 케어하는게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간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인 Assisted Living인 Fullerton Villa 방문

Q 인턴십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점이나 본인의 진로,목표에 변화가 생겼는지?

임여진 : 기존에는 간호사 진로를 병원 안으로 좁게 생각했는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QA나 전문 간호사, 헬스케어 행정 등 간호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다양한 길을 통해서 '웰에이징 산업과 환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영 : 저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도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프로세스나 현지직무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는데, 인턴십을 통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NCLEX- RN*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며, 졸업 후 국내 대학 병원에서 최소 2-3년정도 경험을 쌓고 미국 임상현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NCLEX-RN: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의 약자, 미국의 간호사 시험



▲ Assisted Living인 Aneheim Villa 방문

학생이 전하는 글로벌 이야기

전공 선택부터 진로 경험까지, 달라지는 조선대학교 교육

‘내게 맞는 전공은 뭘까?’, ‘강의실에서 배운 걸 실제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죠.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를 새롭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가 잘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 운영합니다. 무전공입학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1학년 동안 여러 학문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한 뒤, 2학년부턴 해당 단과대학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주도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적성을 알기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충분히 고민한 후 자신에게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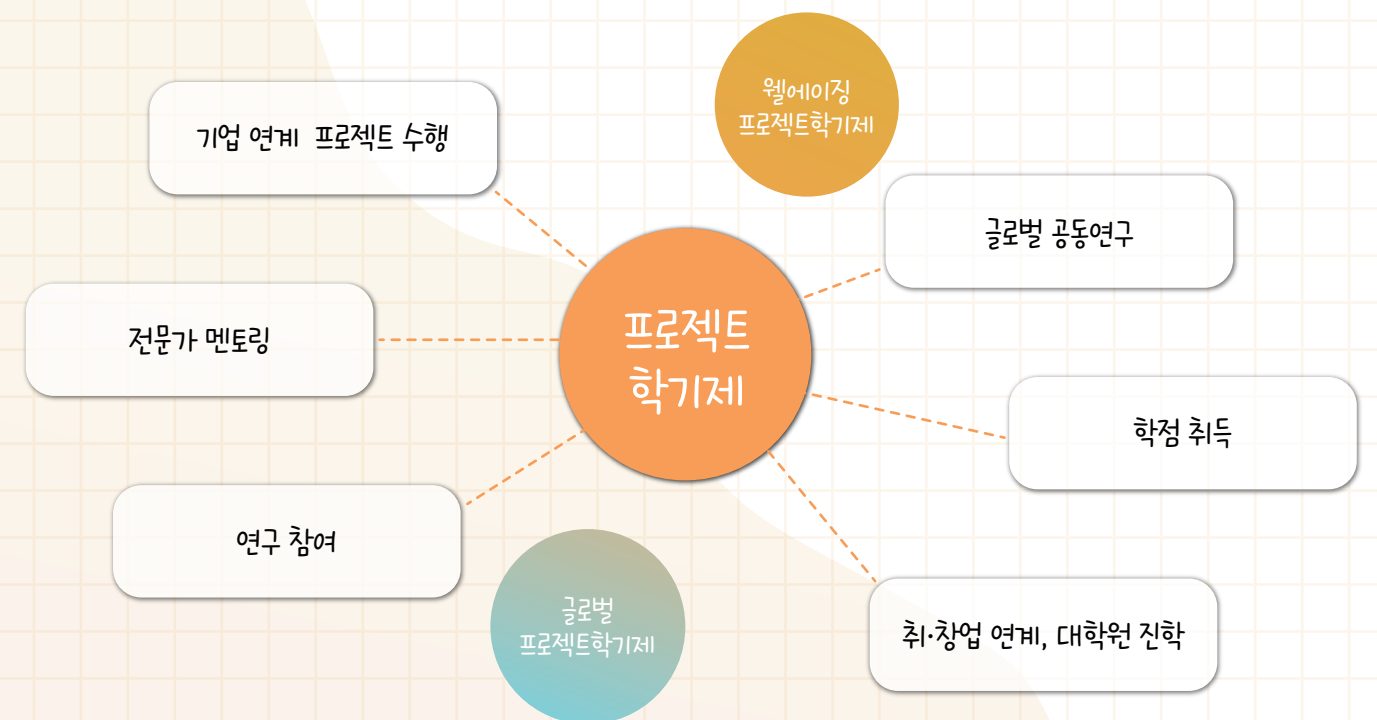
특히 2027학년도부터는 전공자유선택제 모집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2026학년도 140명 규모에서 2027학년도 이후에는 1,582명으로 확대되어 전체 입학정원의 약 35%가 무전공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오메디, 에이지테크, 라이프케어 특성화 모집단위와 글로벌융합스쿨 운영으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전공 입학, 우리에게 어떤 점이 가장 좋을가요? 바로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Academic Advisor(AA) 상담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 AI Guiding Star와 같은 AI 기반 전공 추천 시스템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과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넘어 현장으로! 프로젝트학기제로 배우는 실전경험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프로젝트학기제는 기업·연구소와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웰에이징 프로젝트학기제

웰에이징 산업체·연구소·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 협업을 직접 경험합니다. 실무와 연구 역량을 키우고, 취업·창업·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학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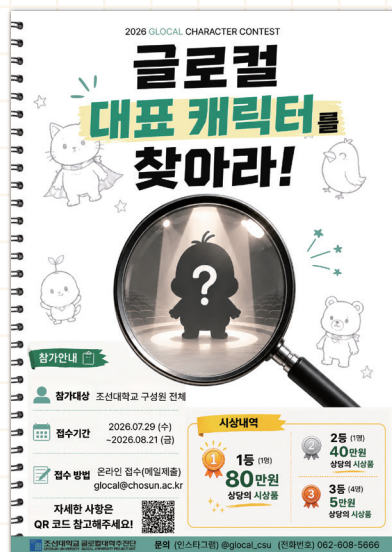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협업 역량을 키웁니다. G-하트온, G-브레인업 프로젝트학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 확대부터 프로젝트학기제까지,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조선대학교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저희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도 이런 변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우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카드뉴스와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조선대학교 글로벌 공식 인스타그램(@glocal_csu)과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로벌레터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CSU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 1기 스토리텔링 최은빈(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글로벌대학 캐릭터 공모전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낼 대표 캐릭터를 찾습니다!

- 접수기간: 2026. 7. 29.(수)~8. 21.(금)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glocal@chosun.ac.kr)
- 시상내역: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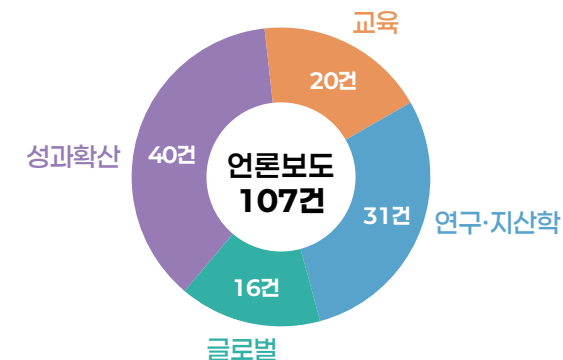


자세한 참가 방법 및 제출양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분야별 언론보도 현황(2026. 7. 30. 기준)

• 교육: 20건	학사, 교육과정, 인재양성, 대학 통합 등
• 연구·지산학: 31건	연구성과, 기술, 산학협력, 기업협력 등
• 글로벌: 16건	해외협력,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크 등
• 성과확산: 40건	비전공유, 행사, 포럼, 홍보 등



조선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의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사업'에 선정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항저우 세종학당'을 설립한다.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과 공동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식·태권도·K-POP 등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1996년부터 이어온 한국어 교육과 해외 세종학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으며, 항저우를 한·중 청년 교류와 K-문화 확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선대, 항저우에 세종학당 설립...
K-문화 글로벌 거점 확대



조선대·동구청 CSU 도시캠퍼스,
'내 인생 예술 한 페이지' 성과공유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광주 동구청이 공동 운영하는 CSU 도시캠퍼스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니어 웰에이징 예술교육 프로그램 '내 인생 예술 한 페이지'의 성과공유전을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완성한 한국화, 목공예, 수채화 등 다양한 작품과 창작 노트를 직접 전시하며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직접 참여하며 예술적 성취감을 높였으며, 조선대학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2분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웰에이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대학



**CSU
GLOCAL
LETTER**

csu GLOCAL LETTER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